

〈칸트의 취미판단 지문 해설〉

by 이디디

과외를 시작하는 입장으로 제 생각을 교정하고 더 배워보고자 하는
마음에 독존님 대회 참가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해설 시작해보겠습니다!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이성^①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미적 감수성은 이성과는 달리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어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 부르면서,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 펼친다.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취미 판단 이론이다.

우선 1문단을 읽으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고, 독해 방향을 잡아봅시다.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이성을 중요시하고 미적 감수성은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합리론이 이러한 태도를 지니는 이유를 정리해볼까요? 바로 미적 감수성은 '원리가 없는 자의적인 것'이고, 이에 따라 미적 감수성은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합리론에 맞선다고 했습니다. 합리론이 미적 감수성은 원리가 없다고 하며 경시한것에 반해, 칸트는 미적 감수성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고, 이성과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1문단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정리해봅시다. 합리론의 경우, 이성은 '확실한 지식'을 만들어낸다고 말하며 미적 감수성을 경시했으니, 확실한 지식의 형성 여부가 이성과 미적 감수성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 이성 VS 미적 감수성의 구도가 형성되는 것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1문단에서는 근대 초기 합리론 VS 칸트 라는 구도가 형성됩니다. 합리론의 입장은 이성 > 미적 감수성이며, 칸트의 입장은 이성=미적 감수성입니다.

글의 화제는 칸트의 주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합리론에 맞서기 위해 이제는 이성=미적 감수성이라는 칸트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 할 차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적 감수성도 중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되어야 하며, 그 부분은 합리론이 미적 감수성을 경시했던 이유인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연결되겠죠? 그럼 우리는 결국, 미적 감수성이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추측을 하며 글을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리는 칸트의 주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취미 판단 이론에서 설명해주지 않을까? 하고 예측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미적 감수성이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 기여하는 내용과 그 원리를 찾겠다고 생각하며 2문단을 읽어봅시다.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 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하지만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의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2문단의 앞 부분을 봅시다. 취미 판단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고, 이는 미감적 판단력, 즉, 미적 감수성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다음 문장에서는 모든 판단의 특징을 설명하며 이성에 의한 판단인 ‘규정적 판단’을 소개합니다. 1문단에서 이성 VS 미적 감수성의 대비 구도를 잡아냈다면, 2문단 앞부분에서는 이성에 의한 규정적 판단 VS 미적 감수성의 행위인 취미 판단의 대비 구도를 잡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판단에서의 술어 P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규정적 판단에서는 P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성질입니다. 취미 판단에서의 P는 미(아름다움) 또는 추(아름답지 않음/ 추하다 할 때 추)인데, 이는 판단 주체의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했으니 이때 P는 주관적인 성질이겠죠. 여기까지 읽으면

이성-규정적 판단-객관적 < = > 미적 감수성-취미 판단-주관적

위와 같이 대비되는 구조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읽어봅시다.

또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즉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내용에서도 규정적 판단과 취미 판단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규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개별 대상을 넘어 여러 대상, 모든 대상을 묶은 단위지만, 취미 판단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개별 대상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언급한 객관적, 주관적이라는 개념과 연결지어 이해해봅시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아주머니가 빨간 사과 5개를 한 바구니에 팔고 있고, 각 사과는 사과1부터 사과5라고 생각해봅시다. 규정적 판단에서는 ‘바구니에 있는 모든 사과는 빨강다’라는 명제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규정적 판단의 지향점은 보편적, 객관적인 성질이고, (색맹을 배제한다면) 누구나 이 사과들을 한번에 묶어서 빨강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취미 판단에서, ‘바구니에 있는 모든 사과는 아름답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성립할 수 없겠죠. ‘모든 사과’처럼 대상을 묶어서 말하면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문에서 말합니다. 일반화란 개별적인 것들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는 취미 판단이 중시하는 ‘주관적 감정’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사과 1과 사과 2, 사과 5에 대한 주관적 감정은 모두 다를 수 있는데, 이를 묶어서 같게 표현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읽어봅시다.

한편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㉔ 끼어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2문단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취미 판단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을 바라보며 생기는, 취미 판단이 중시하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하여 미·추를 판단한다는 내용을 재진술하고 있으며, 이때 미감적 태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개입하면 안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차원의 것이라는 점이다.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간에는 '공통감'이라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 즉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㉔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다.

취미 판단에서 주목할 부분은 취미 판단이라는 것이 공동체적 차원의 것이고, 그 이유는 공통감이라는 미적 감수성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통감이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으니, 공통감은 한 미감적 공동체에서 취미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기준이 결국 '주관적 보편성'이 될 것이구요. 또한 이는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된다는 것을 통해 앞에서부터 해왔던 대비 구도를 더욱 확신할 수 있겠군요! 취미 판단 = 미감적 판단력 (=미적 감수성=공통감)의 행위이므로 누군가 취미 판단을 한다면 그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 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게다가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한다. ‘세계’는 개념으로는 낱알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오늘날에는 미적 감수성을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 퍼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이론적 단초를 칸트에게서 찾는 것은 그의 이러한 논변 때문이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칸트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적 감수성의 고유 원리도 설명해야 한다며 이성=미적 감수성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말하고 있습니다.

지문에서 규정적 판단은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것이라 하였고, 이 보편적인 개념에 따라 주어에 객관적인 성질이 부여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개념으로는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성은 근본적으로 개념에 기초하여 객관적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것인데 ‘세계’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기에 객관적 타당성이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지문의 나온 단어로 다시 한 번 이성 VS 미적 감수성을 연결해보면

이성 - 규정적 판단 - 객관적 타당성 - 객관적 보편성

미적 감수성 - 취미 판단 - 주관적 - 주관적 보편성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적 감수성은 대상에 대한 개념적 규정이 아닌, 자유롭고 주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1문단에서 추측했던, 찾아야 하는 내용이었죠. 바로 ‘미적 감수성이 세계에 신비를 푸는 데 기여한다’라는 내용. 이제야 칸트가 이성뿐만 아니라 미적 감수성 또

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게됐네요! 칸트가 이러한 근거를 통해 미적 감수성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니 미적 감수성을 지혜로 보는 학자들은 칸트에게서 이론적 단초를 찾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지문을 핵심을 정리한다면, 근대 초기 합리론과 칸트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며 칸트의 주장(이성=미적 감수성)과 그 근거(미적 감수성도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 기여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의 타당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성에 의한 규정적 판단과 미적 감수성에 기초한 취미판단의 서로 다른 특징들을 대비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처음 써보는 해설인지라 글이 매끄럽지도 않고 오류도 있을거 같네요...

확실히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건 힘든 것 같습니다 ㅠ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D